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고조령의 길곡리 묘릉-광곡릉

반만년에 이르는 우리 민족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는 그 기간에 창조된 문화유산을 통하여 전해지고있다. 우리 민족의 첫 국가 고조선과 동방의 천년강국으로 이름높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은 선조들이 남긴 역사 유적과 유물이 많은것으로도 유명하다.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 대박산기슭의 통선마루에 있는 단군릉은 동방의 강력한 고대국가였던 고조선의 건국시조 단군의 무덤이다. 우리는 반만년에 걸치는 민족사의 시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으로 훌륭히 개진된 단군릉을 찾았다.

단군릉에서 처음으로 보게 되는것은 통문을 대신하여 고대건축양식에 어울리게 세운 문기둥들이다. 이번에도 동행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리일심연구사의 해박한 설명은 우리가 민족의 고대역사와 단군릉에 대한 리해를 깊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우리는 계속하여 단군릉개건기념비, 단군릉기적비 등을 차례로 돌아본 후 계단을 올라 룡으로 향하였다. 계단을 오르며 우리는 단군을 보좌하여 고조선의 성립과 강화에 크게 기여한 단군의 네 아들과 단군의 측근신하 8명을 형상한 석인상들을 볼수 있었다.

수천년전 그날처럼 그들은 오늘도 묵묵히 단군을 받들고있었다. 리일심연구사의 말에 의하면 9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정4각주형식의 룡은 개진년대를 기념하여 1994개의 화강석을 다듬어 썼다고 한다. 우리는 단군과 그 안해의 유골이 있는 무덤칸과 룡안에 있는 고탕, 돌등, 망주석, 제상, 돌빙 등을 깊은 감명속에 돌아보았다.

단군이 고조선을 세움으로써 우리 민족은 장구한 원시 사회를 끝내고 국가시대, 문명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단군릉기적비에 새겨져있는것처럼 선조들은 강등에 있는 단군릉을 실재했던 단군의 무덤으로 간주하고 제사를 지내어왔고 지금도 단군의 즉위식날인 개천절이 오면 여기서는 민족풍속에 따라 단군제례가 진행되고 있다. 단군제례가 진행되기도 이

제는 5천여년, 하지만 우리 민족이 자기의 진정한 역사를 찾은것은 어느때부터인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1990년대에 진행된 단군릉발굴과정에 단군과 그의 안해의 유체, 유물들이 발굴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동방의 선진명문국이고 우리 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



동방의 유구한 나라 옛 조선의 기상을 안고 주체조선의 푸른 하늘아래 거언히 솟아오른 단군릉 ...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며 거언히 솟아있는 민족의 시조릉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느꼈다. 본사기자 김 철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체육인들. 고저평행봉운동에서 파문을 일으킨 김광숙. 10대의 어린 나이에 세계 체조선수권대회에서 람홍색 공화국기를 휘날린 기적체조선수, 그가 김광숙이다. 어렸을 때부터 앞치마, 뒤전치마 자유자재로 하여 사람들을 놀래우던 김광숙은 그후 평양체육단에서 선수생활을 하게 되었다. 유능한 감독들의 지도밑에 여러가지 기술동작들을 하나하나 완성해나간 그는 국내선수권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우승을 쟁취하는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다. 1991년 9월 제26차 세계체조선수권대회가 진행될 때였다. 대회에서 절정을 이룬것은 고저평행봉경기에 출전한 김광숙선수의 동작이었다. 그는 1989년에 있는 세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높은 봉에 서의 다리벌려 앞공중돌기를 한 다음 다시 봉잡고 턴이 180° 방향바꾸어 아래봉잡기와 같은 종전에는 상상할수 없었던 《김광숙동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그가 높은 기술동작들을 연속 펼쳐보일 때마다 관람자들은 환성을 올렸다. 경기가 끝난 후 전문가들은 고저평행봉운동이 국제경기종목으로 출현한 후 지난 60여년간 이렇듯 독특한 기교동작은 처음 본다고 일치하게 평하였다. 나이는 14살, 아직 어머니 앞에서 음식을 부릴 소년인가. 그가 세계선수권을 보유한것이다. 그는 여러차례의 국제경기에서 1등의 영예를 지녔으며 인민체육인의 칭호를 수여받았다. 본사기자



민속명절 -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을 민속명절로 이르는 말로서 보통 14일부터 시작되었는데 14일은 《작은보름》, 15일은 《큰보름》, 《대보름》이라고 하였다.

민속놀이

정월대보름을 맞으며 우리 선조들은 다채로운 민속놀이를 즐겨하였다. 이날에 특별한 이체를 띤것은 달맞이였는데 쟁반같은 보름달을 먼저 보는 사람에게 그해에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여 달이 뜰 때면 남녀로소 할것없이 앞을 다투어 달맞이를 갔다.

달맞이를 한 다음에는 해불을 켜고 들판에 나가 눈두렁이나 발최뚝의 잡초나 곤충들을 태워버리는 귀불놀이를 하였다.

그리고 마을사람들의 단합된 힘을 시위하는 바줄당기기, 바람개비놀이, 다리밟이놀이 등 다채로운 명절놀이들로 분위기를 돋구었다.

민속음식

정월대보름의 명절음식으로는 약밥, 오곡밥, 복쌈, 9가지 마른나물반찬 등이 이채를 띠었다. 약밥은 찰밥에 꿀과 참기름을 두고 간장으로 간을 맞춘 다음 겹질질 벗긴 밤과 대추를 넣어 찌내어 만들었다.

오곡밥은 벼, 조, 수수, 기장, 팥 등을 섞어서 지은것으로서 《오곡잡밥》이라고도 하였다.

이날에 사람들은 쌀을 싸먹으면서 그해에 풍작을 이루고 많은 복이 차례지기를 기원했다.

나물반찬은 산나물, 바다나물, 호박과 무우오가리, 버섯 등 9가지의 마른나물을 볶거나 무쳐서 만든것인데 이 나물반찬을 먹어야 그해에 더위를 타지 않고 앓지 않는다고 일러왔다.

올해의 정월대보름은 2월 26일이다. 본사기자

속 달 과 뜻

◆ 초사월달은 쟁 며느리가 본다. ◆ 음력 초사월날에 뜨는 달은 잠깐 떴다가는 곧 지므로 부지런한 며느리나 볼수 있다는 뜻으로 초사월의 달이 잠간사이에 집을 형성적으로 이르는 말.

◆ 몹시 재고 빠른 사람만이 무엇을 보거나 얻을수 있는 경우에 비겨 이르는 말.

◆ 새벽달 보려고 어스름달 안 보라.

아직 당하지 않은 일이나 즐거우만 바라면서 눈앞의 일이나 즐거움을 무시하겠다는 뜻으로 우선은 지금 당한 일부터 잘해야 한다는것을 이르는 말.

◆ 반달같은 말이 있으면 온달같은 사위를 삼는다. 고운 말이 있어야 잘난 사위를 맞출수 있다는 뜻으로 무엇이나 자기가 좋은것을 가지고있어야 그에 맞는것을 요구할수 있다는것을 이르는 말.

건강에 좋은 생강

생강은 향신료이지만 효능면에서 보면 어느 식품재료 못지 않게 뛰어나다. 특이한 매운맛생분은 몸의 찬기운을 밖으로 내보내고 따스함을 유지하므로 생강을 먹으면 기침, 감기, 몸살, 몸아름 등이 완화된다.

생강은 피속콜레스테롤을 없애고 피가 굳어지는것을 막으며 똑같이 매운맛을 내는 마늘이나 양파보다 피응고를 막고 피순환을 돕는 효과가 크다.

또한 해열작용을 하고 소염진통제와 비슷한 효과도 나타내며 소화방지에도 효과적이다.

생강은 항산화작용이 뛰어나기때문에 노화뿐 아니라 각종 질병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많이 먹으면 위액이 지나치게 분비되어 위점막이 손상될수 있다.

생강은 익혀먹어도 효능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위가 약한 사람은 익혀서 먹는것이 좋다. 본사기자



천지산천어

천지산천어는 몸길이는 보통 40~50cm, 최고 85cm이며 몸질량은 보통 0.5kg, 최고 7.7kg이다. 천지산천어는 크기가 일반산천어보다 비할바없이 크며 소화기관인 아가미및살수는 2~3개 적고 너스레벌수는 3~4개 많다. 천지산천어는 각종 곤충들과 바위에 달라붙어 떨어지는 지상곤충들, 지어 작은 새들까지 덜쳐먹는다. 산천어가운데서 유라시아대륙의 남쪽 제일 높은 곳에 분포된것으로 하여 천지산천어는 학술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사기자

슬과 거문고

◆ 슬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란악기의 하나이다. 역사자료에 의하면 B. C. 2~3세기 고대국가였던 진국에서 노래와 춤을 즐겼으며 슬을 비롯한 현악기와 여러 가지 형태의 방울, 북, 피리 등의 악기를 가지고 즐겁게 놀았다고 한다.

물론 그때에 사용하던 슬의 구조와 형태, 연주방법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다만 가야금의 전신악기로 추측할때론... 그것은 고려시대에 궁중음악에 사용하던 슬의 형태와 구조가 가야금과 비슷하기때문이다. 본사기자



체온계는 왜 42℃까지 있는가

체온계는 눈금이 최고 42℃까지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그럴만한 근거가 있다. 건강한 사람은 체온을 36~37℃로 유지하는데는 체온이 42℃까지밖에 표시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체온은 한정없이 올라가는것이 아니다. 체온이 41℃를 넘으면 사람은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며 42℃가 되면 생명을 잃는다. 이런것으로 하여 체온계에는 눈금이 42℃까지밖에 표시되어있지 않다. 본사기자

글씨 한 폭 값

어떤 사람이 글 잘 쓰는 선비를 불러놓고 글씨 한 폭을 써달라고 부탁하였다. 《이 자리에서 순식간에 쓴 글을 백냥이나 달라니 너무 과하군요.》 《쓰기는 순식간에 썼지만 글씨를 배우느라 20년동안 공을 들였는걸요.》

사화

돌탑에 깃든 녀 (5)

글 장성철, 그림 김윤일

주위를 둘러 돌을 찾아 보았으나 손에 잡을 만한 돌은 보이지 않으니 석철복의 속은 바질바질 타들어가었다. 여기까지 능들을 끌고왔으니 이제 고지 정방산성 군사들의 눈에 능들이 걸려들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능들은 독안에 든 쥐신세를 면치 못할것이었다.

석철복은 제손으로 한눈의 왜놈이라도 더 바살내고싶었으나 돌이 없었다.

심리묘역에도 눈썹을 막대긴 있는데 무슨 산에 맞춤형 돌이 이렇게도 없단 말인가? 에이,젠장!

안타깝게 사방을 휘둘러보던 석철복의 눈이 한순간 반짝 빛났다.

잘 깎아다듬어 손에 잡기 맞추어져 생긴 수많은 돌들이 돌기돌기 쌓여져있는 정방산의 유명한 돌탑이 눈에 안겨왔던것이었다.

기쁨에 겨워 얼른 돌탑으로 다가가 손을 뻗치려던 석철복은 갑자기 뇌리를 치는 생각에 훑쩍 놀라며 손을 거두었다.

어릴 때부터 자장가처럼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던것

이다. 예로부터 정방산에는 묘가 하나도 없었다. 이 고장 사람들은 정방산을 대단히 신성하게 여겨왔기때문에 여기에 묘를 쓰면 그 신성함이 흐려진다고 생각했었던것이다.

그래서 어느때부터인가 정방산성을 쌓다가 죽은 사람이거나 이성을 지켜싸우다 숨이 진 사람이면 그들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한 정방산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이곳에 그들의 넋이런듯 돌 하나씩을 정히 다듬어 올려놓기 시작했것이 이렇게 탑을 이루고있다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방산사람들은 누구나 고향을 위해 의롭게 죽기를 원하며 여기에 자기의 넋이 깃든 돌 하나가 올라있기를 그리고 소원하는것이

리라. 석철복은 천천히 머리를 흔들었다. (안돼, 이젠 그저 돌이 아니야. 정방산성을 지켜온 의로운 영혼들의 넋이다. 살아서 지킨 고향을 죽어서도 안고 살려서 그들의 마음이야, 마음!)

돌무지에서 손을 뺀 석철복은 이끌거리는 두눈으로 왜놈들을 쏘아보았다.

돌무지를 보자 주춤거리던 왜놈들이 칼날을 번뜩이며 한걸음 또 한걸음 다가들고있었다.

왜놈들과의 거리는 이제 몇보... 그 몇보안에 석철복의 생사가 놓여있었다.

석철복은 젊음이였다. 그래서 아직은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오직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던 날도 언제인가는 돌탑속의 몇몇한 하나의 돌이 되려는 그 생각뿐이였다.

그래서 의롭게 살려고 애썼고 그렇게 살아온 석철복이였고 고향을 지켜 의롭게 죽는것이 또한 그의 소원이였다.

석철복은 젊은이였다. 그래서 아직은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오직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던 날도 언제인가는 돌탑속의 몇몇한 하나의 돌이 되려는 그 생각뿐이였다.

그래서 의롭게 살려고 애썼고 그렇게 살아온 석철복이였고 고향을 지켜 의롭게 죽는것이 또한 그의 소원이였다.

석철복은 젊은이였다. 그래서 아직은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런 때가 왔음을 알았다. 석철복은 얼굴을 돌려 정방산을 한바퀴 휘둘러보았다. 너무나도 낯익은 산천이 왜 이따지도 마음설레이게 아름다운지 몰랐다.

너무도 정이 든 산천. 이 땅에서 다정한 이웃들과 함께 오래도록 살고싶었다. 고지 않은 소원도 생의 마음껏 마시볼수 없을까? 인정많은 이웃들을 다시 볼수 없을까? 석철복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올랐다.

절그럭- 오랑캐놈들이 이제는 턱밑에 다가들었다. 석철복은 그놈들의 걸쭉한 상통들을 마주 바라보다가

마음껏 마시볼수 없을까? 인정많은 이웃들을 다시 볼수 없을까? 석철복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올랐다. 절그럭- 오랑캐놈들이 이제는 턱밑에 다가들었다. 석철복은 그놈들의 걸쭉한 상통들을 마주 바라보다가

마음껏 마시볼수 없을까? 인정많은 이웃들을 다시 볼수 없을까? 석철복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올랐다. 절그럭- 오랑캐놈들이 이제는 턱밑에 다가들었다. 석철복은 그놈들의 걸쭉한 상통들을 마주 바라보다가

마음껏 마시볼수 없을까? 인정많은 이웃들을 다시 볼수 없을까? 석철복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올랐다. 절그럭- 오랑캐놈들이 이제는 턱밑에 다가들었다. 석철복은 그놈들의 걸쭉한 상통들을 마주 바라보다가

마음껏 마시볼수 없을까? 인정많은 이웃들을 다시 볼수 없을까? 석철복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올랐다. 절그럭- 오랑캐놈들이 이제는 턱밑에 다가들었다. 석철복은 그놈들의 걸쭉한 상통들을 마주 바라보다가

마음껏 마시볼수 없을까? 인정많은 이웃들을 다시 볼수 없을까? 석철복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올랐다. 절그럭- 오랑캐놈들이 이제는 턱밑에 다가들었다. 석철복은 그놈들의 걸쭉한 상통들을 마주 바라보다가

마음껏 마시볼수 없을까? 인정많은 이웃들을 다시 볼수 없을까? 석철복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올랐다. 절그럭- 오랑캐놈들이 이제는 턱밑에 다가들었다. 석철복은 그놈들의 걸쭉한 상통들을 마주 바라보다가

마음껏 마시볼수 없을까? 인정많은 이웃들을 다시 볼수 없을까? 석철복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올랐다. 절그럭- 오랑캐놈들이 이제는 턱밑에 다가들었다. 석철복은 그놈들의 걸쭉한 상통들을 마주 바라보다가

마음껏 마시볼수 없을까? 인정많은 이웃들을 다시 볼수 없을까? 석철복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올랐다. 절그럭- 오랑캐놈들이 이제는 턱밑에 다가들었다. 석철복은 그놈들의 걸쭉한 상통들을 마주 바라보다가

마음껏 마시볼수 없을까? 인정많은 이웃들을 다시 볼수 없을까? 석철복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올랐다. 절그럭- 오랑캐놈들이 이제는 턱밑에 다가들었다. 석철복은 그놈들의 걸쭉한 상통들을 마주 바라보다가

마음껏 마시볼수 없을까? 인정많은 이웃들을 다시 볼수 없을까? 석철복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올랐다. 절그럭- 오랑캐놈들이 이제는 턱밑에 다가들었다. 석철복은 그놈들의 걸쭉한 상통들을 마주 바라보다가

마음껏 마시볼수 없을까? 인정많은 이웃들을 다시 볼수 없을까? 석철복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올랐다. 절그럭- 오랑캐놈들이 이제는 턱밑에 다가들었다. 석철복은 그놈들의 걸쭉한 상통들을 마주 바라보다가

마음껏 마시볼수 없을까? 인정많은 이웃들을 다시 볼수 없을까? 석철복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올랐다. 절그럭- 오랑캐놈들이 이제는 턱밑에 다가들었다. 석철복은 그놈들의 걸쭉한 상통들을 마주 바라보다가

마음껏 마시볼수 없을까? 인정많은 이웃들을 다시 볼수 없을까? 석철복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올랐다. 절그럭- 오랑캐놈들이 이제는 턱밑에 다가들었다. 석철복은 그놈들의 걸쭉한 상통들을 마주 바라보다가

마음껏 마시볼수 없을까? 인정많은 이웃들을 다시 볼수 없을까? 석철복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올랐다. 절그럭- 오랑캐놈들이 이제는 턱밑에 다가들었다. 석철복은 그놈들의 걸쭉한 상통들을 마주 바라보다가